논어 19편 자장 1장 · 원문·풀이

子張曰：「士見危致命，見得思義，祭思敬，喪思哀，其可已矣。」

독음 · 자장왈 사견위치명 견득사의 제사경 상사애 기가이의

쉬운 풀이(요약) · 선비는 위기에서 책임을 다하고, 이익 앞에서는 의를 생각하며, 제사에는 공경을, 상에는 슬픔을 다한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張 베풀 장 장 / 曰 가로 왈 / 士 선비 사 사

見 볼 견 견 / 危 위태할 위 위 / 致 이를 치 치 / 命 목숨 명 명

得 얻을 득 득 / 思 생각할 사 사 / 義 옳을 의 의 / 祭 제사 제 제

敬 공경할 경 경 / 喪 죽을 상 상 / 哀 슬플 애 애 / 其 그 기

可 옳을 가 가 / 已 이미 이 이 / 矣 어조사 의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